

근대문화유산 빛으로 깨어나다

군산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28일~9월 20일 개최... '9개 코스 구성' 감동 선사

군산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공간들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만나 빛으로 깨어난다. 군산시는 오는 28일 오후 8시 군산내항 주차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20일까지 21일간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구 군산세관 본관 등'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 19:30~22:30, 매주 월요일 휴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빛을 품은 군산번화구경(群山繁花九景)'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수탈의 아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빛났던 군산의 역사를 9개의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아트 코스로 연출해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구 군산세관 본관부터 내항 역사문화공간(내항 철도)과 구 조선은행 일원까지 이어진 9개의 명소를 따라 이동하며 미디어아트를 관람하게 된다.

코스는 △1경 '빛의 씨앗' (구 군산세관 본관) △2경 '기억의 뿌리' (근대역사박물관) △3경 '생명의 물결' (박물관 분수대) △4경 '변화의 숨결' (근대화 거리) △5경 '시간의 줄기' (내항 철도) △6경 '성장의 꽃망울'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7경 '함께 피는 꽃' (백련광장) △8경 '기억의 만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9경 '남겨진 빛' (군산의 하늘)으로 구성됐다.



군산시는 오는 28일 오후 8시 군산내항 주차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20일까지 21일간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구 군산세관 본관 등' 행사를 개최한다.

다.

특히 올해는 차별화된 볼거리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시민 공모를 통해 시민의 얼굴과 일상을 영상에 담아내는 참여형 프로그램부터 곤포사일리지와 폐침묵 등 오브제를 활용한 연출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 스트리트 아티스트 이종배(Staz) 작가의 특별 참여로 군산의 익숙한 풍경 위에 독창적인 그래픽티

작품을 더할 예정이다.

개막식 직후에는 이번 축제의 총연출을 맡은 김성태 총감독(호원대학교 교수)이 직접 관람객을 이끄는 '총감독 도슨트 투어'가 진행된다. 총감독의 해설을 통해 1경부터 9경까지 작품에 담긴 스토리와 미디어아트 연출 의도를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부안 붉은노를 동요제 참가자 모집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제4회 부안 붉은노를 동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부안 붉은노를 동요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부안붉은노를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상금 규모는 총 1,740만원으로, '붉은노를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을 비롯해 은상(2등) 각 100만원, 동상(2등) 각 70만원, 장려상(4등) 각 50만원, 새싹상(5등) 각 30만원, 참가상(10 등) 각 20만원, 지도상(1명) 50만원 등이 수여된다.

경연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예선인 동영상 심사를 통해 선발된 25팀이 축제 둘째 날인 10월 17일에 현장 예선 무대에 오르게 되며, 여기서 선발된 15팀이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18일 축제 주무대에서 본선 경연을 치르게 된다.

신청서는 부안붉은노를축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와 가장 동영상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오는 9월 15일부터 9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foxant@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출판진흥원, 세종도서 774종 선정

교양 429종 · 학술 345종... 전국 도서관 · 문학관 등에 보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6년 세종도서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학술 · 교양 도서 774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6,844종의 도서가 접수됐다. 경쟁률은 교양부문 10.8대 1, 학술부문 6.4대 1을 기록했다.

최종 선정된 도서는 교양부문 429종, 학술부문 345종 등 모두 774종이다. 선정 도서는 보급처 수요조사를 거쳐 출판사를 통해 직접 구입하며, 1종당 최소 87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종도서 지원 사업은 출판사의 우수 도서 출판 의욕을 높이고 국민의 독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간된 우수 도서를 선정해 전국 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출판진흥원의 대표적인 출판 · 독서 지원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단계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모두 190명의 선정위원이 참여해 도서의 독창성, 충실성,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위원들은 교양 · 학술부문 선정 도서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주제 선정과 집필, 편집에

이르기까지 독자 친화적인 흥미성과 가독성, 교육성을 갖춘 도서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가 다수 선정돼 학문의 지속성과 대중화라는 세종도서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지식기반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선정 도서는 접근성이 높은 전국 2,000여 곳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문학관 등에 보급된다. 또 200여 곳의 병영도서관에도 도서를 보급해 장병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판진흥원은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검증된 우수 도서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 독서를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 도서에 대한 관심에도 발맞춘다. 선정 도서는 한글학교와 해외문화원, 현지 대학 도서관 등 해외에도 보급해 국내 독자를 넘어 해외 독자들이 우수한 한국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뉴트로악극 '이수일과 심순애' 공연

전북문화관광재단 · 창작극회, 28~29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무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하고 창작극회가 선보이는 뉴트로악극 '이수일과 심순애'가 완주에서 관객을 만난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작극회는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과 29일 오후 3시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이수일과 심순애'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기존 공연을 지역 공연장에 맞게 발전시키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민의 공연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작품 레퍼토리' 유형으로 진행된다.

'이수일과 심순애'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신라극의 익숙한 이야기를 창작극회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뉴트로악극이다.

변사의 해설과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연기에 차려 퍼포먼스와 라이브 연주 등을 더해 정통 악극의 정서와 현대적인 볼거리를 함께 선보인다.

작품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청년 이수일과 이름답고 순수한 심순애의 엇갈린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순애는 어머니의 권유로 부유한 김중배와 결혼하면서 수일과 이별하게 된다. 이후 성공한 사업가가 된 수일과 순애가 다시 만나면서 사랑과 배신,



용서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속에 변사의 유쾌한 입담과 막간가수, 차려 퍼포먼스 등 악극 특유의 재미를 더해 관객들의 웃음을 이끌어낸다.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악극의 재미를 선사하며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했다.

/오상근 기자

완주문화관광재단, 장애예술교육 성과공유 포럼 28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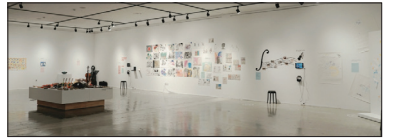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이 4년간 이어온 장애예술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 예술교육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재단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 중앙홀에서 '사이:예술학교' 성과공유 포럼 '장애예술교육, 다음을 묻다'를 개최한다.

'사이:예술학교'는 장애인을 단순한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가 아닌 예술적 표현의 주체로 바라보고, 예술가와 참여기관, 참여자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장애 예술교육 프로젝트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을 통해 어떤 만남과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마주했는지 돌아보며 '앞으로의 장애예술교육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를 함께 질문하는 자리다.

사례발표에서는 '사이:예술학교'의 멘토로 4년간 현장에 함께해온 문해주 멘토와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로 장애예술교육 현장을 연구·실천해온 홍혜진 교수가 참여한다. 문해주 멘토는 '사이:예술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정 중심 장애예술교육의 의미와 변화를, 홍혜진



교수는 지역 장애예술교육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장애예술교육의 방향과 공공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실제 사업에 참여한 참여예술가 김나루 · 소라엘 · 한용희, 참여기관 담당자 권남기, 교육 참여자 김정진 · 양단영이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시선으로 장애예술교육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을 나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참여자의 목소리까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경험한 장애예술교육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자리로, 서로 다른 시선이 만나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그려볼 예정이다.

포럼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는 성과공유 주간 전시 '여러, 다양한, 갖가지 [사이]' 전시 라운딩이 진행된다. '사이:예술학교' 성과공유 주간 전시는 8월 31일까지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서 진행되며,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의 역사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전주매일 캠페인

완주 · 진안 웅치전투

완주 · 진안 웅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웅치(곰치개)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계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웅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웅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본 배경은 시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